

KARA

news letter

KARA 변동식 협회장 신년인사

Issues

2014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어떻게 달라지나
2014 World Rally Championship

News

변동식 협회장 FIA 세계랠리위원 선임
2013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 성료
갑오년, 말띠 레이서가 된다
KARA 공식 파트너, EXR

Racing Team

서한-퍼플모터스포츠

Interview

2013 올해의 오피셜 양돈규 안전위원장

KARA NOTICE

KARA, 선진형 시리즈 등록제 시행
오피셜 경기 참가 전산 등록제도 시행 안내
2014 KARA 공인 오피셜 승급 명단



KARA 변동식 협회장 신년 인사 청마의 기상으로 달리는 한 해 되시길

청마의 해인 2014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 뜻한 바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해 우리 모터스포츠 앞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4년간 이어졌던 F1 한국 그랑프리도 잠시 침표를 찍었고, 다른 국제 이벤트의 국내 유치도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를 대신해 국내 현대자동차가 WRC(World Rally Championship)에 매뉴팩처러팀으로 공식 출전 합니다. WRC는 F1과 함께 모터스포츠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회이며,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적팀과 다름없는 현대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KARA 역시 한국의 WRC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해부터 국제자동차연맹의 세계랠리위원회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도 전보다 풍성해집니다. 정상급 프로 대회인 슈퍼레이스는 8월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우리 자동차경주의 무대를 아시아로 확장합니다. 또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은 송도 임시 시가지 경기장 조성을 통해 수도권 팬들을 자극하는 실험에 나섭니다.

이처럼 경기 주최자들의 새로운 시도들은 우리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협회는 더욱 재미있는 경기, 더욱 수준 높은 경기를 만들기 위해 모터스포츠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는 마음가짐으로 새 시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경기규정을 손보고, 전문 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오피셜들의 경기 참가 기록을 전산화하는 등 레이스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일거리들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청마만리(靑馬萬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 갈기의 말이 거침없이 만리를 달리는 것처럼 꿈을 향해 힘차게 내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지치지 않고 달리는 말처럼 모든 경기의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뜨겁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기록을 앞당기는 성과의 2014년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 1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회장 변동식 *변동식*

2014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어떻게 달라지나

- 국내 공인 대회만으로 35경기 돌파 예정 ... 역대 최대 규모
- 확~ 넓어진 신인 등용문 ... 슈퍼 챌린지 등 아마추어 종목 신설 눈길
- 시가지 경기 도전 등 레이스 팬들에 응답하는 이벤트 풍성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변동식 협회장, 이하 KARA)가 2014 시즌 공인 자동차경주대회의 총 규모가 35경기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아직 집계중인 국제 대회를 제외한 순수 국내 경기만으로 합산으로, 국제 대회까지 더해 34경기가 열렸던 지난 2013 시즌의 기록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KARA는 신인 아마추어 레이서들을 겨냥한 기초 진입 종목 활성화가 올 시즌 경기 증가의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상급 프로 대회인 슈퍼레이스가 신설하는 '슈퍼 챌린지' 대회가 그 주인공이다.

아마추어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이 대회는 스프린트 레이스와 타임 트라이얼 등 2개 종목 경기 방식을 함께 열게 된다. 3월30일 전남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연간 7라운드가 예정되어 있다.

KARA는 이 대회의 개최 효과로 100여명 이상의 신인 아마추어 드라이버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인 이벤트인 '슈퍼레이스' 자체도 더욱 풍성해진다. 지난해와 같이 명물이 된 태백 나이트 레이스와 중국(5월23일) 및 일본(8월1일) 원정 경기를 통해 국제화 기초를 유지한다. 특히 중국 CTCC 대회를 국내에 유치하는 대규모 이벤트인 '한중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8월 KIC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참가대수 및 대회 규모면에서 올 한 해 국내 모터스포츠의 정점을 찍는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올 한해 관중 물의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경기도 있다.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은 오는 5월 인천 송도에 임시 시가지 경기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수도권 배경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모터스포츠 행사다. KSF는 대회 기간 자동차전시회와 관중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해 '달리는 모터쇼'를 방불케 하는 흥행 돌풍을 일으킨다는 각오다.

이밖에 기초 입문 종목 경기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 간판 대회인 코리아카트챔피언십은 올해 로타스미니클래스를 신설하는 등 입문 과정에 무게를 실는다. 올해 총 6라운드가 계획되어 있다. 내구 레이스 형식으로 진행되는 카트 대회인 KOKER 시리즈도 지난해에 이어 4라운드 경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또 KARA가 주도하는 코리아짐카나챌린지 등 기초 종목 경기와 참여 레저형 모터스포츠로 기획된 연비 랠리 경기의 개최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KARA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일부 국제 대회의 유치가 확정될 경우 올 한해 연간 40경기 돌파도 기대해 볼만하다"며 "F1 등 상징적 국제대회가 한 해 쉬어 가는 흐름에서 오히려 국내 이벤트의 양적, 질적 성장에 올 해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KARA 공인 경기는 챌린지와 카트 종목으로 3월에 문을 연 뒤 11월까지 9개월간 거의 매주에 한 경기 꼴로 쉼 없이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2014 World Rally Championship



2014 월드랠리챔피언십(WRC, World Rally Championship)은 국내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이전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빙판과 눈길, 거친 비포장은 물론 자갈밭과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리지 않는 세계 랠리의 정상, WRC에 현대자동차가 복귀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WRC 재도전은 11년 만의 일.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WRC 최고 클래스에 출전하기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2003년 중반 잠정 철수를 결정한 뒤 11년 만에 월드 랠리 챔피언십 풀 시즌에 재도전한다.

- 현대 쉘 월드 랠리 팀, 2014 WRC 풀 시즌에 출전
- 4대륙 순회하며 시리즈 13전 개최

아크로폴리스 빠지고, 폴란드 랠리 재진입

현대자동차가 가세하면서 새로운 경쟁구도를 예고한 2014 WRC는 지난해와 같은 시리즈 13전으로 개최된다. 전반적인 일정은 2013 시리즈와 비슷하다. 1월 14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출정식을 열고 열전에 돌입하는 2014 WRC는 스웨덴, 멕시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까지 지난해와 같은 흐름을 유지한다.

아크로폴리스 랠리가 빠지면서 6, 7전 일정은 바뀌었다. 지난해 7전 이탈리아 랠리가 올해 6전으로 자리를 옮기고, 2009년 이후 잠시 캘린더에서 빠진 폴란드 랠리가 시리즈 7전에 이름을 올렸다. 9전부터는 지난해와 같이 독일, 호주, 프랑스, 스페인 랠리가 이어지고, 2014 시리즈 최종 13전은 올해도 영국 랠리가 지킨다.

현대 i20 WRC, 월드 랠리 최고 클래스에 출전

2014 월드랠리챔피언십은 크게 WRC, WRC2, WRC3 등 3개 카테고리 구분이 있다. 지난해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맨 하위 WRC3 클래스에는 두바퀴굴림(2WD), 1,600cc 터보 또는 2,000cc 이하 자연흡기 엔진을 얹은 경주차들이 출전한다.

RC2 클래스 기술규정에 따라 네바퀴굴림(4WD)이 허용되는 WRC2 카테고리에서는 포드 피에스타 R5, 시트로엥 DS3 RRC, 푸조 208 T16 R5, 미니 존 쿠퍼 워크스 RRC, 슈코다 파비아 S2000과 같은 경주차가 대결한다. 이 클래스에는 R5, S2000, R4, N4 경주차 규정이 적용되어 1,600cc 터보, 2000cc 이하 자연흡기와 터보 엔진을 장착할 수 있지만, 별도 리스트럭처 규정 및 개조비용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1,600cc 터보 엔진을 얹은 경주차들이 출전하는 WRC가 2014 월드 랠리 챔피언십 최고 클래스. RC1 기술규정에 따라 6단 시퀀셜 기어박스과 상시 4WD 시스템을 조합한 경주차로는 폭스바겐 폴로 R WRC, 포드 피에스타 RS WRC, 시트로엥 DS3 WRC를 비롯해 올해부터 현대 i20 WRC 등이 있다. 최고출력 상한선은 300마력. 0→100km/h 가속 시간은 4초 이내로 알려져 있다.



현대 i20 WRC

세바스찬 오지에, 올해 개막전 몬테카를로 랠리 우승

올해 WRC 클래스에 엔진을 공급하는 컨스트럭터는 폭스바겐, 시트로엥, 포드, 현대 등 4개. 폭스바겐모터스포츠, 폭스바겐모터스포츠 II, 시트로엥토탈아부다비, M-스포츠, RK M-스포츠, 지포 카체코내셔널, 현대셀월드랠리팀 등이 매뉴팩처러 부문에서 경쟁을 펼친다. 쿼터월드랠리팀과 로터스팀은 올해 WRC에 출전하지 않는다.

2014 WRC는 폭스바겐모터스포츠와 시트로엥토탈아부다비, M-스포츠의 3강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올해 복귀한 현대셀월드랠리팀의 선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대 강자 세바스티안 로브(2004~2012 드라이버즈 챔피언)가 빠진 드라이버 부문에서는 세바스찬 오지에(2014 챔피언)와 해리-마티 라트발라(이상 폭스바겐모터스포츠), 미코 히르보넨(M-스포츠) 등의 강세가 점쳐진다.

이밖에 지난해 드라이버즈 2위 티에리 누빌(현대셀)과 F1 출신 로버트 쿠비짜(RK M-스포츠)의 활약에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 월드랠리챔피언십 개막전 몬테카를로 랠리에서는 세바스찬 오지에, 브라이언 부피에, 크리스 미체가 1~3위를 기록했다. 14개 경기구간(총 15개 SS(Special Stage), 14번째 SS는 취소) 중 7개 SS에서 1위에 오른 세바스찬 오지에(3시간 55분 14.4초)는 브라이언 부피에를 1분 18.9초 차이로 따돌리고 타이틀 2연패를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WRC 복귀전을 치른 현대셀월드랠리팀은 몬테카를로 개막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해 드라이버즈 2위 티에리 누빌은 1레그 첫 경기구간에서 일어난 사고로 일찌감치 리타이어했고, SS 4까지 3위로 선전을 펼친 다니 소르도는 SS 5 도중 일어난 경주차 트러블에 열미를 잡혔다. 이밖에 올해 WRC 풀 시즌에 출전하는 로버트 쿠비짜는 SS 1, 2를 선두로 달리며 1레그를 3위로 마쳤지만, 9번째 경기구간 이후 경쟁 대열에서 이탈했다.

월드랠리챔피언십 드라이버 및 매뉴팩처러 점수 제도는 F1 그랑프리과 같이 1위부터 10위까지 25, 18, 15, 12, 10, 8, 6, 4, 2, 1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각 랠리마다 1개 파워 스테이지(Power Stage)를 두고, 이 구간 1~3위 드라이버에게 3, 2, 1점을 별도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모나코 몬테카를로 랠리를 마친 현재 폭스바겐모터스포츠(37점), 시트로엥토탈아부다비 월드랠리팀(33점), M-스포츠월드랠리팀(10점)이 매뉴팩처러즈 부문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KARA 변동식 협회장 FIA 세계랠리위원 선임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변동식 협회장이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세계랠리위원회' (World Rally Championship Commission)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세계랠리위원회는 F1과 함께 국제 모터스포츠의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WRC(World Rally Championship) 대회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다.

변동식 협회장의 세계랠리위원 선임은 지난 12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국제자동차연맹 총회에서 FIA 장 토드 회장의 직접 추천과 총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변동식 협회장의 FIA 위원회 진입은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스포츠 외교의 쾌거로 평가된다.

● F1과 함께 양대 산맥 이루는 핵심 위원회

●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위상을 높인 스포츠 외교의 큰 성과

특히 이번 성과가 국내 간판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2014 세계랠리선수권에 공식 출전에 앞서 이루어진 점도 의의가 크다. 국적 팀을 위한 KARA의 행정적 지원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는 실익이 있어서다.

새롭게 세계랠리위원회에 선임된 변동식 협회장은 6일 프랑스 파리 FIA 총회 현장에서 "세계 모터스포츠의 발전 및 현대월드랠리팀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 힘쓰겠다"며 "해외에서의 외교적 성과를 국내 자동차경주 발전으로 잇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 ... 올 한 해 자동차경주 결산하는 화합의 장
- 모터스포츠 관계자 350여명 한 자리에
- 올해의 드라이버, 올해의 레이싱팀, 올해의 오피셜 등 7개 부문 시상

2013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 성료

한 해 국내 자동차경주를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변동식 협회장)가 12월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이스홀에서 '2013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을 개최했다.

올 한 해를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각 부문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 이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드라이버상'은 황진우(CJ레이싱, 29)에게 돌아갔다.

이날의 시상부분은 모두 7개 종목. 단체에게 주는 올해의 레이싱팀은 CJ레이싱, 올해의 기록상은 조항우(아트라스BX, 38), 올해의 오피셜상은 양돈규씨(40), 올해의 여성 드라이버상은 권봄이(26)에게 돌아갔다.

이어 공로자를 가리는 특별상 수상자로는 신생 경기장인 인제스피디움, 페어플레이상의 주인공은 정연일(EXR 팀106, 32)로 결정되었다.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수상한 황진우는 헬로비전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챔피언에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특히 국내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벌어진 시리즈 7라운드, 신설 인제스피디움에서 펼쳐진 3라운드 등 국내 대회는 물론, 중국 천마산 경기장과 일본 스즈카서킷 등 해외 원정 라운드 우승을 싹쓸이하며 한 시즌에 서로 다른 4개 경기장에서 1위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우며 전천후 승부사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5명으로 구성된 KARA 수상자 선정위원 중 4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만큼 뚜렷한 성과였다.

황진우와 함께 이날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주인공은 올해의 기록상 수상자인 조항우였다. 조항우는 지난 8월31일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5라운드(인제스피디움)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개인통산 100경기 참가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2013 올해의 기록상을 거머쥐었다. 조항우는 통산 100경기 출전까지 14년 동안 시리즈 종합 챔피언 3회, 통산 14승 달성 등 최정상급 실력을 유지했다. 조항우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KARA가 마련한 '100 Race 기념 반지'가 주어졌다. 이 반지는 앞서 같은 기록을 돌파한 이재우와 함께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단 두 명만이 소유하고 있다.

2013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은 CJ헬로비전, 인제스피디움, EXR코리아, 티빙, FMK, 크루타, 엘이에이지 등이 후원했다.



갑오년, 말띠 레이서가 된다



2014 갑오년 설날을 앞두고 청마의 질주 본능을 타고난 말띠 카레이서들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에 등록된 현역 드라이버 가운데 말띠는 모두 15명. 가장 고참인 1966년생을 시작으로 중견인 1978년을 거쳐 막내인 1990년생까지 3대에 걸쳐 고르게 올 시즌 국내외 서킷을 질주하게 된다.

문성학(90년생)-해외로 가는 국가대표 말띠

스물네살 90년생 말띠 가운데 가장 화제의 인물은 해외 무대 활약이 기대되는 문성학(성균관대)이다. 문성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FIA(국제자동차연맹) 인터내셔널A 라이선스 소지자다. 문성학이 2014년 유독 주목 받는 이유는 포물러의 본고장인 유럽 무대 진출이 예고되어 있어서다.

문성학은 "유럽 무대에 대한 적응은 충분히 마친 상태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실전에 앞서 체력 보강 훈련에 전념하고 있으니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목표는 우승. 10대 카트 시절부터 다진 기본기를 무기로 시리즈 종합 상위권을 노린다.

고명진(90년생)-말띠 얼짱 여성 레이서

고명진은 스타 레이서 류시원 감독이 이끄는 팀106의 슈퍼 루키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 화려하게 모터스포츠에 입문했다. 치열한 드라이버 오디션에서 살아남은 승부 기질에,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까지 갖춰 신인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업계의 주목을 독차지 했던 주인공이다.

고명진은 "저와 같은 띠의 해인 만큼 열심히 달려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레이스에 참가해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영관(66년생)-아들과 함께 뛰는 고참 말띠의 저력

새해 만 48세가 되는 나이에도 현역 드라이버로 저력을 과시 중인 1966년생 김영관(르노삼성SM3레이싱팀) 드라이버는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제네시스쿠퍼클래스 우승팀인 서한-퍼플의 주력 드라이버 김종겸(23)의 아버지이기도 해 부자가 함께 카레이서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관은 자신의 13번째 레이스 시즌에 들어서며 "SM3 GT 경주차의 세팅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어 새해 성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종겸이는 물론 카트 무대를 졸업한 학경이까지 세 부자가 함께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새 해 소망"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말띠 드라이버 2014년 새해 소망

김민환(66년생)

레이싱에 입문한 지 벌써 3년차,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과 각오로 첫 경기에 참가했을 때의 초심은 찾기 힘들고, 노력 없이 경기에 참가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뽀뽀스러워졌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터... 갑오년 말띠해를 맞이한 말띠 선수로서 올해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적토마의 모습을 꿈꿔본다.

이창우(78년생)

2013년과 동일하게 록타이트 HK 레이싱 팀에서 CJ Superrace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2014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좋은 아빠와 뛰어난 직원이 되는것이 소망이며 비록 취미생활이긴 하지만 말띠의 저력으로 슈퍼1600 클래스(N9000 클래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팀에 승리를 안겨다 주는것이 목표입니다.

임우근(90년생)

2014년 새해소망은 지금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것이고 순위권 및 포디움 한번 밟아보는게 올해 목표이네요. 새해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분들도 좋은 성적 거두고 승승장구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KARA 공식 파트너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변동식 협회장)가 오피셜 머천다이징 파트너인 스포츠 브랜드 EXR코리아 (대표이사 한창훈)와 공식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따라서 2014년 각종 국내 공인 대회에 파견되는 협회 임직원과 회원들을 위한 유니폼을 후원하게 된다.

협회와 EXR은 2013년 7월 9일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F1 한국그랑프리를 포함한 국제대회와 각종 국내 공인대회에 파견되는 협회 임직원의 유니폼과 2013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을 후원하며 성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했다.

EXR은 모터스포츠분야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쳐온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레이스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제품에 투영해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어왔고 캐주얼 패션 장르를 개척, '캐주얼처럼 즐기고 스포츠처럼 일한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새롭고 독특함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패션 스타일 선봉여 웰빙 트렌드와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관계자는 "2013년 EXR의 후원을 통해 협회의 이미지가 보다 친근하고 젊게 변할 수 있었다"며 "2014년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EXR의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KARA, 선진형 시리즈 등록제 시행

(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가 올해부터 공인경기의 시리즈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시리즈 등록제도는 2경기 이상의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합산으로 순위를 가르는 모든 형태의 대회에 적용된다.

다만 카트, 짐카나 등 기초 종목에 대해서는 의무 등록을 한 해 유예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올해부터 2라운드 이상 열리는 시리즈 경기를 개최하는 주최자는 KARA에 연간경기 일정을 미리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RA는 현재 2월10일 기한으로 2014 시즌의 시리즈 등록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캘린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FIA 및 해외 모터스포츠 주관단체들의 국제적 시스템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시리즈 사전 등록을 통해 주최자간 경기 일정 중복 등의 문제를 사전에 논의할 수 있게 되며 경기 참가 오피셜들이 체계적으로 연간 경기 참여 계획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 시즌 전 사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매 경기마다 주최자들이 KARA로 제출해야 했던 행정 서류의 양식이 종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된다.

지난 2013 시즌까지는 매 경기 2주전 서류 접수를 통해 대회 공인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명확한 공인 대회임에도 잔여 경기의 공인 여부가 예측에 의해서만 추정되는 행정적 모순이 잔존했었다.

대회 공인 비용은 지난해 수준에서 유지된다. 다만 시리즈 등록시 사전 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경기마다 연간 총비용 중 잔여분을 나누어 내게 되는 점이 달라졌다.



KISS 소개 및 의무화 안내

오피셜 경기 참가 전산 등록제도 시행 안내
심판원의 소중한 경기 참가 이력 보존에 의의

- 드라이버 및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도 홈페이지서 간편히
- 새로운 전산망 KISS 도입 ... 회원 불편 최소화에 초점

2014년부터 자동차경주의 심판원인 오피셜들의 경기 참가 신청 및 경력 조회 등이 온라인 전산망으로 관리 된다. KARA는 올해부터 공식 가동되는 KISS(KARA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통해 주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오피셜 인력의 관리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KISS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ara.or.kr)를 통해 연동되는 웹 환경(info.kara.or.kr)에서 이루어지는 회원 및 오피셜 관리 시스템의 이름이다.

그 동안은 오피셜 개개인의 경기 참가 경력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했지만 새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특정 오피셜이 어떤 경기에 어떤 파트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명확히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데이터는 오피셜의 경력증명서 발급, 라이선스 승급 등 다양한 행정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협회의 KISS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공인 자동차경기에 참가하려는 오피셜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 희망 대회와 파트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오피셜의 참여는 해당 경기 주최자가 승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프로모터들이 오피셜 인력의 확보 상황을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레이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까지 경기 참가를 희망하면서도 뚜렷한 접수 방법조차 없어 곤란을 겪었던 오피셜들에게 참여 신청의 문을 투명하게 열어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KISS를 통한 경기참가 신청은 주최자인 프로모터들의 시리즈 등록이 완료되는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라이선스 접수는 이와 무관하게 1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또 경기참가 신청 뿐 아니라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도 KISS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되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는 라이선스 신청을 위해 복잡한 서류 양식을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협회에 보내야 했다.

이는 드라이버 라이선스 신청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 → 승인 → 라이선스 비용 납부 → 카드 발급 등 한 걸 간소화된 절차로 바꾸었다.





2013 KSF 제네시스쿠페 10 챔피언십 우승
서한-퍼플모터스포츠 레이싱팀

Seohan **Purple**
Leading the future way Motorsport

서한-퍼플모터스포츠 팀의 2013년은 화려하게 빛났다.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KSF) 출전 2년 만에 챔피언 팀 반열에 우뚝 선 덕분이다. 지난해 KSF 정상 클래스, 제네시스쿠페 10 챔피언십을 석권한 서한-퍼플모터스포츠의 우승 동력은 탄탄한 팀워크. 걸출한 실력을 갖춘 라이벌 팀들에 맞설 무기로 남다른 팀워크를 꺼내 든 서한-퍼플모터스포츠는 '더블 타이틀'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 7전 중 4승으로 쉘템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것은 물론, 3승으로 분전한 정의철이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 공인 대회에서 처음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

'배우는 자세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 프로 자동차경주 데뷔 두 번째 해에 겹경사를 누린 서한-퍼플모터스포츠의 전신은 2000년에 출범한 오비탈레이싱이다. 창단 이후 드래그레이싱과 한국모터챔피언십, BAT GT 챔피언십, KGTC 시리즈 등에 꾸준히 참가한 이 팀은 서한-퍼플모터스포츠로 이름을 바꾼 2011년부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모터스포츠 저변확대 방안도 우직하게 추진되었다.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브로스모터스포츠와 YR-모비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매 경기마다 서한키즈모터마크 프로그램을 가동해 모터스포츠 분야 연구개발 후원 및 활성화 측면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리고 맞이한 2012년은 서한-퍼플모터스포츠의 오늘을 잉태한 출발점이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 '모터스포츠를 또 하나의 연구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KSF 제네시스쿠페챔피언십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KSF에서의 첫 해 성적은 종합 3위. 장현진과 전대는 듀오를 내세운 서한-퍼플모터스포츠는 신생팀의 패기를 여실히 드러내며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 자동차경주 데뷔 2년째로 접어든 2013년은 '서한-퍼플모터스포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팀 대표의 남다른 열정, 영드라이버 정의철과 김종겸 영입, 그리고 강화된 미케닉 진용이 만들어낸 탄탄한 팀워크가 서한-퍼플모터스포츠를 KSF 정상 고지로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준 때문이다.



팬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 넘어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한-퍼플모터스포츠. 그러나 이 팀 이문식 감독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몸을 낮췄다.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똘똘 팀원들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 정상급 레이싱팀으로 발돋움하려면 부족한 면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짧은 기간 동안 강력한 팀 컬러를 구축한 서한-퍼플모터스포츠의 2014 시즌 목표는 타이틀 2연패. 여기에 더해 이문식 감독은 "팀원들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하고, 내실을 견고히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정의철, 장현진, 김종겸 트리오를 그대로 기용하는 서한-퍼플모터스포츠의 2014년은 매우 밝게 전망된다. 이미 올곧게 뿌리내린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이어간다면 한 차원 높은 우승 방정식을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오피셜
양돈규 안전위원장

카레이스는 서킷을 달리는 레이싱카의 화려함과 뛰어난 주행성능, 귀청을 때리는 머플러의 굉음, 현란한 드라이버의 테크닉이 무대 전면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무대 뒤에는 이들을 빛내주기 위해 애쓰는 오피셜들이 있다. 다시 말해 카레이스는 공평의 원칙과 안전의 원칙을 존중하며 진행과 심판을 맡아주는 오피셜들의 보이지 않는 공로가 뒷받침되어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모터스포츠 무대에서는 400명 가량의 오피셜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가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3 KARA 모터스포츠인의 밤'에서 '올해의 오피셜'로 선정된 양돈규 씨다. 공식호칭은 CJ헬로비전 슈퍼레이스 시리즈 안전위원장. 지난해 F1 코리아그랑프리에서는 부경기위원장 및 드라이버와 팀 관계자, 기타 경기진행 인력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와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머전시 코디네이터를 맡기도 했다.

“차를 좋아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많이 가르쳐 준 레이스계의 선배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 출신인 삼촌을 통해 모터스포츠와 인연을 맺은 그는 1999년 창원 F3를 통해 오피셜로 데뷔했다. 이후 각종 대회에서 왕성한 오피셜 활동을 펼친 그는 지난해 호주모터스포츠연맹(CAMS)과 함께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으며, 국내 첫 공식 오피셜 교육서(‘모터스포츠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발간에도 참여하는 등 바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그는 1억 원 가량을 들여 손수 제작한 구난차와 구난장비를 슈퍼레이스와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투입해 인선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속상할 때가 많지만 이제 막 성장 동력을 받은 모터스포츠를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전문적인 오피셜도 길러야 하고 규정을 명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합니다. 안전위원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고삐를 늦출 수 없어요.”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꿈 또한 탐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양 위원장의 변신을 변치 않는 기대와 믿음으로 지켜보자.



2014 KARA 공인 오피셜 승급자 명단

KARA 최근 3년간 공인 경기 활동 자료와 “2013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국내 규정집 선수, 심판원 등록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승급을 단행하였습니다. 승급 하신 오피셜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국내 D → C2 라이선스 승급

공 란, 권익현, 기창범, 김민수, 김새봄, 김이삭, 김정대, 김현경, 박창준, 신언용, 이용석, 이현기, 장태훈, 정동진, 정주용

● 국내 C2 → C1 라이선스 승급

강현승, 권준영, 김규범, 김영득, 김태식, 김햇살, 김형국, 류혜연, 박상준, 반병민, 방승연, 방진석, 배길한, 서본근, 서은경, 소윤민, 송다영, 신기성, 신동섭, 심순용, 안동빈, 안병도, 양성규, 이민구, 이상백, 이임수, 이정민, 이정희, 이준화, 이준환, 임계남, 임금주, 장덕영, 전성수, 정선욱, 조주연, 조철민, 진현아, 최정훈, 한범신, 한승백, 한형대, 허경환, 황기명

● 국내 C1 → B2 라이선스 승급

강성욱, 곽범신, 김부섭, 김유진, 김현준, 김휘정, 양원웅, 윤연정, 이동훈, 정대원, 형천우, 황재웅

● 국내 B2 → B1 라이선스 승급

김동현, 김정석, 김한수, 김홍영, 남선숙, 박충환, 용재명, 이동혁, 이성미, 정대준, 정인수, 최나현, 한정철

※ 특별승급인원은 추후 KARA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Sponsored by



National Events

CJ 슈퍼레이스 <http://www.superrace.co.kr/>
KSF <http://www.ksfrace.com/>
KKC <http://cafe.naver.com/2010kkc>
KOKER <http://www.koker.kr/>

사진 출처

서한-퍼플모터스포츠 Raceweek
문성학 레이서 F2 웹사이트



KARA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KARA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 원하는 소식이나 정보에 대한 의견뿐 만 아니라 자유로운 비평과 건의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karapost@kara.or.kr

KARA 뉴스레터 통권 03호

발행인 변동식 발행처(사)한국자동차경주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20층

전화 02.424.2951 팩스 02.424.2953
공식 웹사이트 www.kara.or.kr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ramotorsports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